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회장 최경주)은 26일 광주 상무시민공원 인공암벽에서 '제21회 전국스포츠클라 임당대회'를 개최했다. 남자 일반부에 참가한 오세웅(경기) 선수가 수직의 암벽을 사력을 다해 올라가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돌풍, 강원 돌풍 삼켰다



## 상무 김명중 2골 '명중'... 강원FC 3-1 꺾고 선두 질주 전남 풍운아 이천수 맹활약... 수원 4-1완파 첫승 신고

상무의 돌풍이 더 거셴다.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2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신생팀 강원 FC와의 K-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넣은 김명중의 활약을 앞세워 3-1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상무는 5승1무1패(승점 16)를 기록하며, 3-0으로 대전 시티즌을 꺾은 전북 현대(4승2무·승점 14)를 따돌리고 정규리그 선두 자리를 고수했다. 2009시즌 이변의 주역으로 꼽히는 두 팀은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며 명승부를 연출했다. 강원 감독이 먼저 터졌다. 상무 골키퍼 김용대가 전반 31분 강원 윤준하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홈에서 첫 실점을 했다. 하지만 3분 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김명중의 시즌 4호골이 터졌다.

4명의 수비수를 뚫고 날린 김명중의 짜릿한 동점골에 1-1로 전반을 마감한 양팀은 후반 들어 밀고 밀리는 접전을 펼쳤다. 후반 중반 들어 상무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경기 흐름을 되돌리는 최원권의 역전골이 터졌다. 후반 30분 문전에서 날린 김명중의 강력한 슈팅이 강원 골키퍼 유현에게 막히며 튀어나오자 최원권이 골문으로 달려들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후반 46분에는 승부에 쐬기를 박는 김명중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3-1 상무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 됐다. 상무는 신생팀 돌풍의 강원 마저 제압하면서 홈 4연승으로 '광주 불패' 신화를 이어갔다. 전남 드래곤즈도 '돌아온 풍운아' 이천수의 맹활약을 앞세워 정규리그 7라운드 만에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전남은 2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4골을 몰아넣으며 4-1로 정규리그 첫 승을 거두고 탈락지에 성공했다. 경기중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던 이천수는 복귀전에서 1득점 1도움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전반 4분부터 슈바의 득점포가 가동된 전남은 전반 17분 김승현의 추가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수원 수비수를 제치며 김승현에게 공을 넘겨줘 도움을 기록했던 이천수는 전반 47분에는 아크 왼쪽에서 공을 감아차 득점까지 기록했다. 전남 골 공세를 펼친 전남은 후반 32분 수원 김대익에게 페널티킥을 내주긴 했지만 후반 44분 다시 김승현의 페널티킥으로 4-1

■ 프로축구 중간순위 (27일 현재)

순위	팀	승	무	패	득실차
1	광주	16	5	1	7
2	전북	14	4	2	8
3	서울	11	3	2	5
4	인천	11	3	2	4
5	성남	11	3	2	2
6	부산	8	2	2	-1
7	강원	8	2	2	-2
8	포항	7	1	4	-1
9	전남	7	1	4	-2
10	제주	7	2	1	-3
11	울산	6	1	3	-1
12	대전	6	1	3	-4
13	대구	6	1	3	-4
14	경남	5	0	5	-4
14	수원	5	1	2	-4



완승을 거뒀다.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정규리그에서 4무1패로 최하위로 떨어졌던 전남은 6번째 도전 만에 첫 승을 신고하며 9위까지 뛰어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



26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09 K리그' 광주 상무와 강원 FC의 경기에서 상무 최성국(사진 오른쪽)이 슈트를 시도하려하자 강원 김병겸이 반칙으로 저지하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이적생' 김상현 만루포

## 신지에 준우승 日 후지산케이 클래식



### KIA, 삼성 10-2 꺾어... 4연패 뒤 2연승

타이거즈맨으로 돌아온 김상현의 파워가 폭발했다. '이적생' 김상현이 26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6차전에서 통쾌한 만루홈런을 터트리며 KIA 팬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팀은 김상현의 만루포 등 장단 11안타를 몰아치며 10-2로 승리했다. 지난 19일 우완 강철민과의 1대2 트레이드 통해 박기남과 함께 LG에서 KIA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김상현은 2002년 좌완 방동민과 맞트레이드 된 뒤 7년 만에 다시 타이거즈맨이 된 '이적생'. 이적 후 첫 경기였던 22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3루수로 선발 출장했던 김상현은 23일에는 좌익수로 나서 조범현 감독의 테스트를 받았다. KIA로 돌아온 뒤 5경기에서의 타율은 16타수 5안타로 0.313. 하지만 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에 아쉬운 상황에서 팀의 2연승을 잇는 김상현의 홈런포가 터진 것이다.

을 때려냈던 김상현은 7년 만에 돌아온 친정팀에서 생애 첫 만루 홈런을 장식했다. 김상현은 6회 밑을 날리는 플레이로 체태인을 파울 플라이로 돌려세우는 등 수비에 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과시했다. 김상현의 만루홈런을 앞세운 KIA는 8회 나지완의 2타점 2루타와 최희섭의 적시타를 묶어 10-1까지 달아나며 2연승을 이었다. 선발로 나선 구름슨은 7이닝을 6피안타 6탈삼진 1실점으로 막고 시즌 2승째를 챙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일고, 경남고와 오늘 8강 티켓 다툼

대통령배 고교야구  
광주일고와 경남고를 제물로 제43회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 8강 진출을 노린다. 제주고를 콜드승으로 물리치고 대회 16강에 진출한 광주일고가 27일 오후 1시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경남고와 8강 티켓을 놓고 다투게 된다. 지난달 27일 부전승으로 진출한 황금사자기 2회전에서 경남고에 2-3으로

### 강성훈 유럽투어 연장서 패

강성훈(22·신한은행)이 프로 데뷔 후 첫 우승 기회를 연장전에서 날려버렸다. 강성훈은 26일 강릉이 몰아친 제주 서귀포시 링크스 골프장(파72·6천730m)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207m)을 내세워 2회전 진출을 노렸지만 1-0으로 앞선 9회말 조윤성에 끝내기 안타를 맞으며 1-2로 겨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강진에 '허구연 야구장'

### 베이스볼파크 인조잔디구장... 내달 22일 준공

국내 최초 개인이름 붙여  
"허구연 필드를 아시나요?" 전국 최대 규모의 야구 전시현설인 '강진베이스볼파크'에 국내 최초로 개인 이름을 딴 야구장이 탄생한다. 26일 강진군과 ㈜강진베이스볼파크(대표 우수창) 등에 따르면 내달 22일 준공식을 갖는 강진베이스볼파크의 야구장 4면중 내야 인조잔디구장명을 MBC 야구해설위원인 허구연씨의 이름을 딴 '허구연 필드'로 붙이기로 했다. 또, 허구연 해설위원은 자신의 이름이 붙는 내야구장의 인조잔디 공사비를 전액 지원키로 약속했으며, 업체측이 울

/강진=남철희기자 choul@